

내장호 일대 '사계절 복합 관광지'로

정읍시, 수변 공간 치유 시설 조성 체육·레저 시설과 유기적 연결 1년 내내 머물고 싶은 관광지 육성

정읍시는 최근 국회와 지자체 등 6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내장호 일원 사계절 복합 관광지 조성 현장 점검과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현장 점검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이학수 시장, 박일 시의장, 영영성 도의원, 한경동 내장산공원사무소장, 박태준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내장호 일원을 정읍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미래 관광 청사진을 공유했다.

정읍시가 구상하는 내장호 일원의 미래상은 단순한 개발사업의 나열을 넘어 치유와 체험, 체육, 접근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관광생태계 구축이다.

호수와 수변 공간을 중심의 치유관광 기반시설을 다져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레저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시의회의장, 한경동 내장산공원사무소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이 현장 시설 등을 살피고 있다. <정읍시 제공>

특정 계절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기존 내장산 관광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전략으로 이재명정부의 지역공약사업에 지정된 만큼 사업 실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태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내장호 일원이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도 "오늘 현장 방문은 내장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며 "정읍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내장호 일원이 단풍 명소를 넘어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찾고, 머물고, 치유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단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청년 내집 마련 꿈 돕는다

무주택자 월세 월 최대 16만원·전세금 연 최대 200만원 지원

남원시가 청년(19~45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월세, 전세, 주택 매입까지를 종합 지원한다.

월세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16만원을 준다. 전세는 대출 잔액의 3% 안에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준다.

빛을 내 주택을 매입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연간 최대 190여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들 지원은 소득, 보증금, 주택 면적 등의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홍기선 남원시 기획예산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병해충 강한 벼 신품종 개발

공모 통해 이름 '달하미' 확정...내년까지 1500ha로 재배 확대

정읍시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협력해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지역 맞춤형 벼 신품종 '달하미'를 개발, 현장 보급에 나선다.

이 품종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수요자 참여 벼 품종개발(SPP) 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시에 따르면 육종 전문가와 농업인, 소비자 등이 현장 연구에 직접 참여해 정읍의 재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종자를 찾아냈고, 시민 공모 절차를 거쳐 '달하미'란 이름도 지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참동진' (전주623호)과 '남찬' (전주595호)을 교배해 만든 달하미는 쌀알을 크게 만드는 유전자(gs3)를 지녀 외관이 굵고 맑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신동진'의 경우 흰잎마름병·키다리병 등에 약한 특성을 갖고 것과 달리, 달하미는 벼흰잎마름병·키다리병·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해 내병성을 높였다고 한다.

또 달하미는 쌀알이 익어가는 등숙기(9-10월) 고온 조건에서도 현미 정상립 비율이 72.1%로 나타나 기존 중대립 품종(25.4%) 대비 우수한 등숙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대상 밥맛 평가에서도 참여자의 84.1%가 신동진과 비교했을 때 달하미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하다'고 답했다.

시와 식량과학원은 달하미의 신속한 현장 보급·확산을 위해 단계적 재배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올해 달하미를 110ha 규모로 재배하고 14ha의 재증포를 조성해 보급용 종자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까지 재배면적을 1500ha로 확대해 지역 내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쌀 포장 디자인 개발과 홍보물 제작 등 브랜드와 지원도 병행해 달하미를 정읍 대표 쌀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달하미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뜻을 모아 탄생시킨 정읍형 맞춤 품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든든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브랜드 쌀로 집중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군민 안전 23개 항목 보장

고창군, 보험료 전액 부담

고창군이 1년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총 23개 보장 항목을 가입·시행한다.

고창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의 조기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을 포함해 총 23개 항목을 보장함으로써 군민 체감형 안전복지 향상을 꾀했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외국인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당시 고창군민이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신고처리 접단 창구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심택섭 고창군수는 "총 23개 항목의 군민안전보험 운영과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을 통해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더욱 두텁게 지켜나가겠다"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대응과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지리적표시 등록 '고창수박' 을 첫 정식



고창군이 '2026년 지리적표시 고창 명품수박 첫 정식 행사'를 개최했다. <고창군 제공>

5월 하순부터 수확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대한민국 명품 수박으로서의 가치를 공인받은 고창수박이 본격적인 재배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

고창군은 지난 20일 무장면 농가 수박 재배포장에서 관계자와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리적표시 고창 명품 수박 첫 정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은 고창 수박의 명성을 공고히 하고 농산물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수박 재배 농가와 고창군이 함께 추진해 온 오랜 숙원사업의 결실이다. 그 결과 고창수박은 2024년 9월 20일, 지리적표시 제 116호로 공식 등록됐다.

고창수박은 매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1기작 수

박 모종 정식이 진행되고, 이날 정식 된 수박은 5월 하순쯤 수확되어 2026년산 지리적표시 마크를 부착한 첫 고창 명품 수박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가 열린 박형남 농가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지리적표시 고창 명품 수박 출시 기념 경매 행사에서 수박 한 통이 500만 원에 낙찰되는 기록을 세운 주인공으로, 고창 수박의 프리미엄 가치를 전국에 알린 대표 농가로 다시 한번 고창수박 명품화의 상징적 주인공으로 주목받았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창수박은 기후와 토양, 농가의 정성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명품 농산물이다"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지리적표시 고창 수박 마케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청년 취업 단계별 맞춤 정책 추진

청년도전지원·청년 성장프로젝트 선정...사업비 3억5800만원 확보

남원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및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연속 선정되며 3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취업 준비와 성장 단계를 연계한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8~45세 구직단념·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사업으로 올해 52명 규모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전북자치도 사업수행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휴먼제이앤씨'를 올해의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15~45세 청년 364명이 대상이다.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역량 강화, 인성 설계 교

육, 직무 탐색, 네트워크 형성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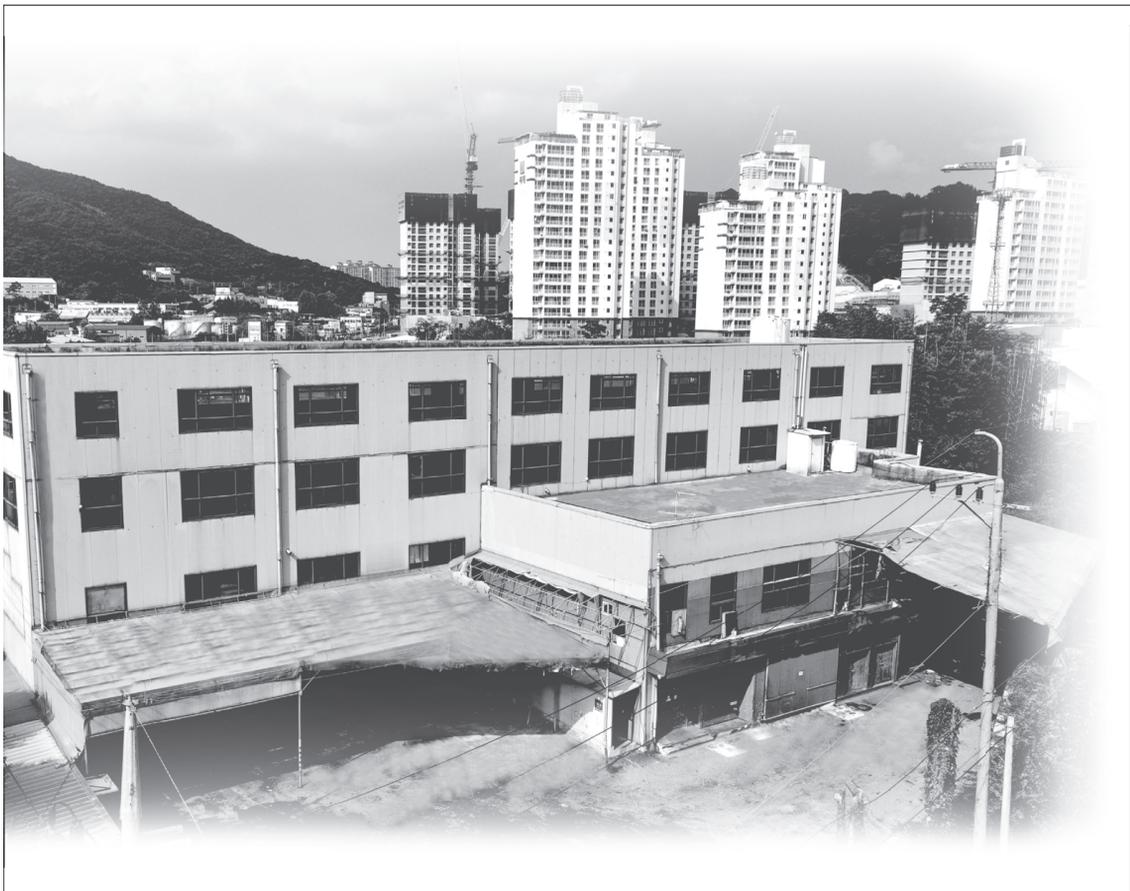
남원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와 남원 청년도전지원사업단을 거점으로 오는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동시 선정을 통해 단순한 일자리 연결을 넘어 청년의 심리적 회복부터 직무 역량 강화,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근 지리산권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지리산권 청년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청년들이 남원에 머물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총출동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 활력 넘치는 청년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지 920평
건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